

## 유리병 속에 갇힌 표현의 자유들

안효섭(건국대 국어국문학과 4)

여기 벼룩이 있다. 알려진 과학적 사실로는 벼룩은 자신의 몸길이보다 무려 400배에 해당되는 높이뛰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는 벼룩을 유리병에 가둬보자. 벼룩은 400배는커녕 200배도 안 되는 높이에서 유리병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기를 거듭하게 된다.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보자. 뚜껑을 열면 벼룩은 자신이 가능한 만큼 높이 뛸 수 있지만 벼룩은 유리병에 부딪혔던 높이만큼만 뛰어오르고 만다. 결국 벼룩은 유리병 높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리병을 탈출하지 못한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 『피비우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영화 『피비우스』는 가족 간의 금기된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근친 간의 성관계 장면 등으로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한 상영관이 없는 실정에서 사실상 ‘상영 금지’를 받게 된 『피비우스』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국내 상영에 대한 찬반 시사회를 여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결국 『피비우스』는 1분 40초 정도 삭제된 채로 심의를 받은 끝에 9월 초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영화인들은 이러한 논란을 통해 제한 상영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덕 감독은 주류 한국 영화와는 매우 다른 노선을 걸어온 감독이다. 주류 영화들이 다루지 않는 대상과 주제 의식을 과감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극단적인 정서와 다소 불편함이 느껴지는 표현들은 그의 작품 세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이런 장면들은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3대 영화제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동시에 획일화된 한국영화에 다양성을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한 와중에 신작 『피비우스』는 사실상의 상영 금지라 볼 수 있는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인 소재에 대해 심의 시스템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 상영가 판정에 따른 논란은 꽤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논란이다.. 2002년, 노인의 성을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가 첫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뒤로 해마다 심의 등급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도 과도한 잔혹성에 의해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일부 장면을 잘라낸 뒤에야 겨우 개봉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들은 해당 장면을 편집하여 재심의를 받는 수순에서 관객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편집을 말미암아 작품은 훼손이 되어버리고 만다.

최근 『피비우스』에 대한 제한 상영가 판정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

게 믿고 있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마음껏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표현의 자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군부 독재 정권 시대에는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필름이 가위질당하고, 감독이 구속되고, 작품들은 폐기처분되었다. 시대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때의 망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선정성과 폭력성이라는 모호한 기준 아래서 표현의 자유는 상실되어 버린다. 성인과 청소년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성인들의 볼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억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창작자를 포함한 우리는 벼룩이 되고, 모호한 심의 시스템은 유리병인 셈이다.

모호한 등급 기준의 기저에는 문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이러한 우려를 통해서 보면, 끔찍한 살인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를 본 관객들은 연쇄 살인범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대중들은 문화에 휘둘리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시작된 잘못된 발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정책은 이에 준하여 양산되고 있다. 여전히 게임은 정서 파괴의 주범이고, 만화는 불태워야 할 것이고 잔혹하고 선정적인 영화는 모방범죄의 온상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실제로 구현된 현실이 아닌 부유한 수사적 표현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법의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표된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속에서 인간은 정서를 드러내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한 자유의 바탕 속에서 문화는 이룩되고 또한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피비우스』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억압의 망령이 살아있는 문화의 부자유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유리병과 같은 표현의 통제는 우리들에게 통제된 상상력만을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통제되고 획일화된 창작물만을 양산하게 만들 뿐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요원한 일이며 결국 경쟁력마저 잃게 될 것이다.

문화의 힘이 그 어떤 정치, 경제적 힘을 압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류의 바람 속에서 K-POP과 한국 온라인 게임이 돌풍을 일으키고,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시대적 잔재 앞에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문화는 퇴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각성이 필요하다. 스스로 유리병에 부딪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은 유리병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일개의 벼룩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성숙한 대중으로 나서야 한다. 성숙한 대중들의 의식 있는 각성만이 표현의 자유를 비로소 ‘자유’롭게 만든다. 한계에 갇히지 않는 자유의 토대에서 우리들의 문화는 한층 발전하고 또한 진실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유리병을 벗어나야 할 차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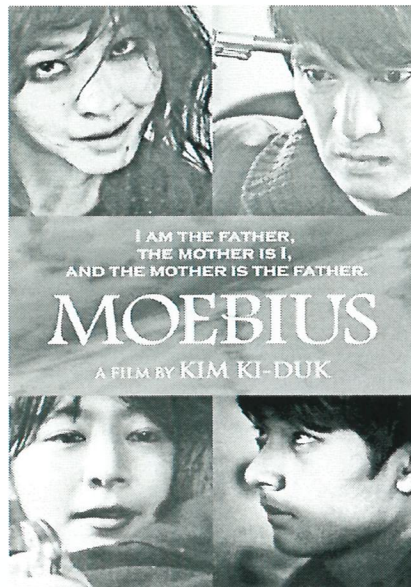


## 김기덕, '뫼비우스' 일부 삭제 재심의 신청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최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뫼비우스>(사진)의 김기덕 감독이 결국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재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김 감독은 18일 박선이 영등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다”며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재현, 이은우, 서영주 등이 출연한 영화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한 남성이 환멸을 느끼고 속세를 떠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 간 성관계 묘사 등을



### 근친 성관계 묘사 제한상영 판정 21컷 1분40초 분량을 삭제·수정 “개봉 기다리는 스태프 무시 못해”

두고 지난 4일 영등위로부터 “근친 간 성관계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따로 없어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에 해당한다.

김 감독은 애초 다시 등급을 부여받는 재분류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3개월 뒤에나 재심 자격이 주어져 9월 예정된 개봉 일정을 맞출 수 없어 자진 삭제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영등위의 5가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21컷(1분40초 분량)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김 감독은 “법이 정한 개봉 절차를 위해 영상을 제출했다면 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재분류에서 다시 제한상영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고,

그럴 경우 배급시기를 놓치고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배우와 스태프의 지분을 챙겨주지 못하게 된다”며 “한국 사회에 유해한 영화로 기억되는 것보다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 계획된 시기에 상영하기 위해 자진 삭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뫼비우스>는 주연·조연·단역까지 대사가 없어 영상이 중요하지만 성숙한 성인 관객들은 충분히 뉘앙스를 추론하며 영화를 이해하리라 생각한다”며 “한국 배우와 스태프와 작업한 이상 국내 개봉은 어떤 경우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앞으로 문제가 될 장면을 불가피하게 연출해야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외국 프로덕션에서 외국 배우들과 작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 이준익)은 전날 성명을 내어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결정은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판정 철회, 박선이 위원장 퇴진, 영등위의 민간자율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